

# ‘1시간 생활권’이 통합 밑바탕…촘촘한 교통망 구축 필수

광주전남특별시

초광역 메가시티로 비상

&lt;3&gt; 초광역 교통 인프라가 핵심

행정 구역의 통합 선언보다 시도민의 삶을 더 빠르게 변화시키는 것은 물리적 거리의 단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해도 광주·전남을 오가는 데 여전히 2시간이 소요된다면, 서류상의 통합 일뿐 진정한 의미의 ‘메가시티’라 할 수 없다.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의 혜택은 아침에 광주에서 눈을 떠나주로 출근하고, 저녁에 목포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단일 생활권’의 완성에서 비롯된다. 광주전남행정통합의 가장 큰 과제는 양 시도를 ‘30분에서 1시간 이내의 생활권’으로 묶어내는 초광역 교통 인프라의 완성이다.

그동안 광주·전남의 교통망은 시·도 경계에서 단절되거나,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얹혀 기형적으로 운용돼 왔다.

광주공항 이전 문제에 발목 잡혀 지역 발전의 골든타임을 허비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2026년 통합 모멘텀과 6자 협의체의 공항 이전 합의는 꽉 막힌 혈관을 뚫을 절호의 기회다. 이제는 육상, 해상, 항공을 아우르는 입체적 연결망인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

통합 광주전남특별시의 척추가 될 ‘광역 철도망’ 확충은 시급한 선결 과제다.

광주 상무역에서 나주 혁신도시, 무안국제공항을 거쳐 목포역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는 도심과 부도심을 잇는 핵심 대중교통 축이 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교통수단의 확충을 넘어, 광주와 전남 서남권을 하나의 경제·문화 공동체로 묶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동부권 역시 순천, 여수, 광양을 잇는 전철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 광주전권과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을 획기적으로 좁혀야 한다.

교통망의 확장은 산업 경쟁력의 직결 통로다. 무안국제공항을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 공항으

육상·해상·항공 잇는 ‘트라이포트’

광주-나주-무안 ‘광역철도망’ 시급 서남권, 글로벌 물류 허브 육성을

로 육성하고, 이를 목표신항 및 광양항과 철도로 촘촘히 연결하는 물류 시스템을 완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전남의 신선한 농수산물과 광주의 첨단 AI 제품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물류 허브가 구축된다. 이는 부산·경남의 가덕도 신공항 전략에 대응해 호남권의 독자적인 생존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특히 그동안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 소외되었던 ‘서부권 산업 도로망’ 구축은 균형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광주에서 영암 대불산단,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잇는 고속도로와 철도망이 확충되면, 물류비 절감은 물론 침체된 서부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는 동부권(여수·광양)에 치우쳤던 산업 지도를 서부권 석유화학 및 재생에너지 산업과 연결해 ‘남해안 신성장 벨트’를 완성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시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통합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주 시내버스와 전남 농어촌버스가 환승 할인 없이 제각각 운행되는 불편을 없애고, 수도권처럼 하나의 카드로 어디든 갈 수 있는 ‘통합 광역 환승 요금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이는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인적 교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교통은 도시의 혈관이다. 혈관이 막힐수록 뚫려야 사람과 돈이 돈다. 광주와 전남 구석구석을 잇는 촘촘한 교통망은 통합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자, 시도민을 하나로 묶는 실질적인 끈이 될 것이다. “어디든 1시간, 하나 된 광주·전남”. 이것이 통합 정부가 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할 미래의 청사진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송정역에 ‘포용디자인 테마공간’

19일 오후 광주 광산구 도시철도 1호선 광주송정역 대합실에서 열린 ‘포용디자인 테마공간 개관식’을 찾은 시민들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포용(Inclusive)’을 주제로 새롭게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도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 ‘전남광주특별시’ 제안

역사·정체·상징성 담아내는 문제  
통합 의견청취 방식 본회의 처리

전남도의회가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변경하라고 제안하고 통합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절차는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또 행정통합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사 문제와 같은 쟁점 사항과 보완 과제를 정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아 논란을 예고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19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정통합은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가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역사·정체·상징성을 함께 담아내는 문제”라며 “전남도의 요구대로 주민투표 대신 의회 의견 청취의 뜻을 받아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구체적인 안건 상정 시기와 있느냐

앞서 양·시도는 통합하는 지방정부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잠정 결정한 바 있는데, 전남도의회는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태균 의장은 “전라도의 역사성과 전남·광주의 통합의 균형을 고려할 때, 명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명칭 문제 역시 도민 공감과 협의가 전제돼야 하며, 의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브리핑 전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특히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에 있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로 결정된 의회 의견 청취 방식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태균 의장은 “의회 청취 절차는 의회 상정의 결로 결정했다”며 “전남도의 요구대로 주민투표 대신 의회 의견 청취의 뜻을 받아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구체적인 안건 상정 시기와 있느냐

는 질문에 “광주시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1월 예정된 전남도의회 제396회 본회의 개회일(30일)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시점이 같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양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발의 전 주민 의견 청취에 해당하는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끝마치려 하기 때문이다.

본회의 개회까지 9일밖에 남지 않은 데다,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려면 전남도가 의회에 상정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 전남도와 의회 간 관련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의회는 또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 통합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청사 등 민감한 사항을 다루기로 했다.

김태균 의장은 “필요시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심층적이고 공식적인 의회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해남군, ‘관광두레’ 신규 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

해남군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특색을 살려 관광 상품을 만들고 운영하는 정부의 ‘관광두레’ 사업 신규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 지역으로 해남군을 비롯해 경기 광명시, 충남 서천군, 울산 중구, 강원 철원군 등 5곳이 확정됐다. 해남군은 전국

33개 지자체가 경합한 이번 공모에 선정됐다. 전남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뽑혔다.

문화체부는 관광두레 피디(PD) 후보자의 역량과 지역 이해도, 지자체의 협력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해남을 최종 낙점했다. ‘관광두레’는 주민공동체가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숙박·식음·여행·체험 등 관광 사업을 주도적으로 창업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직접 관광 문제를 해결하고 상품화한다는 점에서 ‘풀뿌리 관광’의 핵심 모델로 꼽힌다.

이번 선정으로 해남군은 최대 5년 동안 국비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관광 사업체 육성에 나선다.

선발된 주민 사업체에는 창업을 위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상품 개발 판로 개척, 홍보 마케팅 등 사업의 전 주기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본 회사는 2026년 01월 19일 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 제6항에 근거하여 주주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등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 및 동의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6년 03월 23일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1월 20일

주식회사 동양테크원  
광주광역시 남구 봉신로 76,  
107(상가동)동 지하1층 103호(10호)  
(주)월동·주월동이지더원아파트1단지)  
청산인 정 영 현

### 합병 및 주권제출 공고

2026년 01월 19일 개최된 주식회사 라인산업(이하 ‘라인’)의 임시주주총회와 같은 날 개최된 주식회사 ‘온’(이하 ‘온’)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같은’ 합병 및 주권제출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합병등에 대한 합의로 결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26년 1월 20일

주식회사 라인산업  
광주광역시 남구 서원로 1길  
7-4(서원) 대표이사 권 혁 용  
피합병법인: “라인” 주식회사 이지카발  
광주광역시 남구 봉신로 76, 107(상  
가동)동 지하1층 103호(10호)(주)  
월동·주월동이지더원아파트1단지)  
사내이사 김 이 사

###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본 회사는 2026년 01월 19일 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 제6항에 근거하여 주주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등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 및 동의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6년 03월 23일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1월 20일

주식회사 동양하우드  
광주광역시 남구 봉신로 76,  
107(상가동)동 지하1층 103호(10호)  
(주)월동·주월동이지더원아파트1단지)  
청산인 정 영 현

###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26년 1월 9일 주주총회 결의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일 이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1월 20일

주식회사 이지카발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동길 63번길 31,  
102동 5층 502호(지죽동, 광산엔리체  
레이크시티오피스텔)  
청산인 장 영 옥

74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 지국안내 •

북 구	동 광 266-1920	문 흥 266-1960
• 북광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